

“민주적 학교 문화 갈등 조정해야”

인천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침해예방 대토론회’ 개최...학습권 보장 논의

인천시교육청(도성훈 교육감)은 지난 28일 인천시교육청 정보지원센터 4층 대회의실에서 ‘교육활동 보호 방안’에 대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대토론회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 인권교육전문가, 법률전문가, 정책전문가 등이 참여해 교육활동 침해 사건 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토론회 좌장은 MBC 100분 토론 사회자인 중앙대 정준희 교수가 맡아 교육공동체 대표자와 전문가들의 토론을 이끌었다.

토론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됐으며 인천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와 학생자치 네트워크 학생들이 현장에서 질의에 참여했다.

토론회 결과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원, 학생, 학부모의 연대적 보호 기구나 조정자가 적극적으로 모든 교육 공동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에 뜻을 모았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2차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분쟁조정 등 갈등 관리가 가능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보호 기구나 조정자가 적극적으로 현장 개입을 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는 일부 소수의 침해자로 인해 발생하지만 그 피해는 다수의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공동 이해와 더불어 ‘교권’을 보호하는 것이 다수 교육공동체의 학습



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점을 참가자 모두가 동의하였다.

한편 교권을 직업적 권한으로 해석하는 의견과 스승으로서의 소명의식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서로 다른 의견이 각각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나왔다.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개념이나 ‘교육활동 침해’를 이해하는 개념이 세대와 주체별로 다를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

현 교원지위법 한계를 묻는 질문에는 침해 사후 처리 방안 중심의 법안이라는 답변이 있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학생자치와 학부모 참여를 통한 학교 자율 규칙 강화, 교사와 학부모 및 교육전문가가 참여하는 교육활동 보호 관련 협력적 협의체 운영,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지도와 규칙을 중심으로 하는 지도권 확보와 분쟁조정 위원회의 활성

화 방안 등이 본 토론회를 통해 제안되었다. 현 교원지위법 보완 차원의 사법적 사후 처리 방안 모색에 머물지 않고 학교 구성원들의 민주적 학교 문화 정립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겠다는 인천 교육공동체의 교육적 접근 방식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침해의 대상자로서가 아니라 상대의 권리를 존중하는 서로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따뜻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이 지금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풀 수 있는 중요한 열쇠라는 것이 토론회의 최종 결론이었다.

본 토론회에 참가한 시교육보호위원회 위원인 유경희 시의원은 “지역사회와 학교의 친밀한 관계를 강화하며 지속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

사의 교권은 서로 대립하는 권한일 수 없고 함께 상생하는 상호보완적인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제안된 사항들은 검토하여 추후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토론회를 준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권보호 및 교원치유지원센터 ‘교원돌봄터’는 교원 침해 사안에 대한 법률·상담·의료 윈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장을 지원하고 있다.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교실’을 학생, 교원, 보호자 대상으로 운영하며 2022년 현재 145개의 초·중·고 학교에서 진행 중이다.

인천 김정호기자 kjh6114@kmaeil.com

심리지원 상담 체계 확대 ‘큰성과’

인천시, 자살률 2020년 26.5명→2021년 25.9명...전국보다 낮은 수준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증가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 자살률이 전년보다 0.6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27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인천시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은 25.9명으로 2020년 26.5명보다 0.6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2021년 전국 자살률 26.0명보다 낮은 수준으로, 전년(25.7명)보다 전국 자살률이 증가한 상황에 거둔 의미있는 성과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는 인천시는 14위를 기록해, 2020년 10위였던 것과 비교해 크게 낮아졌으며, 8개 특·광역시 중에는 6위를 기록해 최근 10년 이내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이 같은 성과는 인천시가 자살 예방을 위해 시도적 정책을 추진한 결과로 분석된다.

그 동안 인천시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심리지원 상담 등 도움 체계를 확대해 왔다.

특히 올해 자살예방의 날을 기념한

‘내일도 맑음’ 힐링콘서트에서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감동을 전해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기도 했다. 또한 택시, 학원, 약국, 병원, 종교계 등 생명지킴이를 양성해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자살고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인천시는 2022년 자살예방사업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표창을 받았으며, 특히 ‘생명사랑학원’ 사업은 2022년 우수 자살예방사업으로 선정돼 2021년 ‘경인이라벨’ 시정교 안전난간 설치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자살예방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김석철 인천시 건강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자살률 감소는 인천시와 시민이 함께 노력한다면 자살은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인천시는 1인 가구와 노인의 자살예방과 심리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 김정호기자 kjh6114@kmaeil.com

웅진군, 주민·관광객 대상 ‘2022년 국가안전대진단’ 홍보 캠페인



인천 웅진군(군수 문경복)은 29일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주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2022년 국가안전대진단’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국가안전대진단은 대형안전사고의 빈번한 발생으로 안전 사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사회 전반의 안전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예방 활동이다.

이번 캠페인은 군민 스스로 내 집과 내 시설물에 대한 자율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생활 속 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일환으로 자율안전점검표 및 국가안전대진단 홍보물품 배부 등 다양한 방식의 홍보를 통해 군민들이 직접 안전대진단에 참여하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재난안전과장(박태완)은 “관내 46개소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종료한 후, 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적극적인 추후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며 안전한 웅진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인천 김철학기자 kmaeil@kmaeil.com

이재호 연수구청장, 대한민국 시장·군·구청장협의회 부회장 선출



이재호 연수구청장이 민선8기 전반기 전국 자치단체간 협력과 공동 현안들을 논의하고 이끌어 나갈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28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민선8기 첫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을 대표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호 연수구청장이 부회장으로 선출되면서 앞으로 2년간 협의회 공동회장단 회의 운영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상호 교류와 협력,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공동문제 대응, 대정부 정책건의 등의 핵심 역할을 하게됐다.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전국 226개 기초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협의체로, 자치단체 간 공동현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상생 협력 및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는 단체로 격월로 정례회의 등을 통해 주요 현안사항을 논의해 왔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에 이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회장으로 선출된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방자치단체간 소통은 물론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각종 현안을 해결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김만수기자 kingkim2020@kmaeil.com

누구나 방문하고 싶은 명소 만든다

인천도시공사, ‘검단 박물관·도서관 복합문화시설 건립’ 국제설계 공모

인천도시공사(市)는 검단신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검단 박물관·도서관 복합문화시설 건립’ 국제설계공모를 오는 10월 말 공모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는 이번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검단 박물관·도서관 복합문화시설’이 지역을 상징하는 독특하고 개성 있는 공공건축물로서 누구나 방문하고 싶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설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본 국제설계공모는 국·내외 모든 건축가를 대상으로 참가신청은 10월 31일부터 시작되며, 2023년 2월 작품접수 및 심사를 거쳐 2023년 3월 당선작을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검단 박물관·도서관 복합문화시설’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14호 근린공원 부지 내에 조성될 예정으로 추정사업비 1,200억원, 추정연면적 25,720㎡, 지하1층·지상4층 이하 규모이다.

도시관은 인천광역시 ‘인천 공공도서관 개관 100주년’을 기념하고자 시비

449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폐가 인천광역시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건립 예정이며, 폐에서 주관하는 박물관과 통합 건립하여 복합문화시설로서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박물관은 폐와 L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검단지구 내 발굴 유적 홍보 등 인천 서북부 대표 박물관으로서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문화 향유 공간, 인천 고교학부종합대학을 유치할 수 있도록, 건립 후 인천광역시에 무상귀속 될 예정이다.

폐 이승우 사장은 “이번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4차 산업시대의 건축트렌드를 반영한 박물관·도서관 복합 문화공간 조성이 가능하도록 국·내외 우수한 건축가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향후 검단신도시의 상상이 될 수 있는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해 인천광역시, LH 등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 김정호기자 kjh6114@kmaeil.com

부평구, 부평청소년페스티벌 ‘성평등 에코백 만들기 부스’ 운영



부평구(구청장 차준택)청소년문화센터는 최근 ‘2022 부평청소년페스티벌’에서 ‘성평등 에코백 만들기 부스’를 운영했다.

이번 ‘성평등 에코백 만들기 부스’는 아동 및 청소년뿐만 아니라 기성세대까지도 일상생활 속에서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에 평등하게 바뀐 단어로 사용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는 부스를 운영해 특정 성별에

기울어져 있는 것을 평등하게 하고 우리 사회의 차별을 없애는 ‘기러기스위스별’ 등 성 평등 에코백 만들기’와 ‘성 평등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정호 부평구 청소년문화센터장은 “이번 성평등 부스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이 성평등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평등 문화가 형성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 임영희기자 dudghkdlas66@kmaeil.com

인하대 김연성 교수, 한국경영학회 2024년 회장으로 당선

인하대학교(총장 조병우)는 김연성 경영학과 교수가 한국경영학회 2024년 회장으로 당선됐다고 29일 밝혔다.

한국경영학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도 한국경영학회 차차기 회장 선거결과를 공고했다.

경영학회 선관위에 따르면 총 선거인 3,385명 중 58.5%인 1,981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김연성 교수가 59.1%를 득표해 40.9%를 얻은 김용진 서강대학교 교수를 앞서는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한국경영학회는 매년 선거를 통해 2년 후 경영학회를 책임질 회장을 미리 선출한다. 김연성 교수의 한국경영학회 회장 임기는 2024년 3월부터 1년이다. 김 교수는 인천 지역 최초이자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는 두 번째로 한국경영학회장으로 당선됐다.

김연성 교수는 현재 한국고객만족경영

학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생산관리학회 회장, 한국품질경영학회 회장, 한국서비스경영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2001년 인하대학교 부임 후에는 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담당, LINC사업단장, 기획처장, 정식학술정보관장 등으로 활동했다.

사단법인 한국경영학회는 1956년에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경영학회로 ‘한국경영학회의 모태 학회’다.

김연성 인하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경영학회의 전통과 유산을 잘 이어가며, 모든 회원을 위한 연결된 성장 플랫폼을 구축하고, 한국경영학회와 우리나라 경영학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더 좋은 세상을 위한 더 나은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인천 김정호기자 kjh6114@kmaeil.com

계양구 계산1동 ‘어깨동무’ 화제

자원봉사자들, 주거환경 열악 저소득 가구 방문 환경개선 봉사 실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1동 ‘어깨동무’ 자원봉사자들은 지난 27일 관내 주거환경 열악한 저소득 가구를 방문하여 청소 등 환경개선 봉사를 실시했다.

대상 세대는 청각장애와 당뇨 등 만성질환으로 몸이 불편한 홀몸 노인인 등 적절한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집안 내 쓰레기가 방치되고 주거위생이 취약한 상태였으며 주변 이웃의 재보로 이번 환경개선 봉사가 진행됐다.

또한, 대상자는 상담을 통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연계되었으며 홀몸노인 생활지원사가 파견되어 추후 구립계산노인복지센터에서 중점관리대상자로 관리될 예정이다. 지난 4월 결성된 ‘어깨동무’ 봉사단은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관내 장정단 봉사자들이 돕는다는 취지 아래 복지대상자들로 구성된 단체로, 밀박찬 봉사,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봉투 전

달, 주거환경개선 등의 활동을 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참여 봉사자들은 만성질환, 알코올중독, 우울증 등 신체·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내 이웃을 돕는 마음을 전하고 있다.

봉사에 참여한 한 대상자는 “생활이 어려운 힘든 시기에 복지제도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다.”라며, “그동안 받은 도움을 봉사를 통해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는 생각이 평소 있었는데, 좋은 기회로 참여하게 되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계산1동 보장협의체는 “적극적으로 봉사에 참여해 주신 봉사자와 사업추진을 위해 후원해 주신 지역주민들과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인천 임영희기자 dudghkdlas66@kmaeil.com